



명 노 승 명예회장

중국과의 관계증진과 명옥진 연구실태 확인차 중국특사 파견!

특사일행, 수주 탄생지, 중경 예릉과 대하국 황궁터를 찾아가다

우리 명씨는 시조의 탄생지와 룡이 중국에 있는 관계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관계이다.

우리 명씨대중회 명위진 명예회장은 1982년 3월 30일 중경시 강북구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릉이 발견된 이후,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 측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중국 중경시 강북구 당 부서기였던 문광상(文光祥), 강북구 부구청장 단은진, 강북구 문화국장 이조옥(李朝玉) 등을 한국으로 초청, 그들이 입고 왔던 인민복을 양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양복과 셔츠, 넥타이, 구두, 속옷 일체를 선물하고,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이때 그들이 느낀 명위진 명예회장과 명씨대중회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아주 오

래도록 남아있음으로써, 이후 그들은 명위진 명예회장과 친 형제 자매와도 같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강북구청 간부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이후에도 거의 매년, 다른 업무 때문이라도 한국을 찾는 강북구청 간부들은 의례적으로 명위진 명예회장을 찾았고, 그때마다 명위진 명예회장은 정성을 다해 그들을 대접하고 선물과 금일봉을 챙겨주는 등 친절과 정성을 베풀 일이 수십 차례를 넘었다.

또한 명위진 명예회장은 명씨대중회 방문단이 중국에 갈 때마다 그들을 불러 모아 식사를 함께 하게 했고, 예릉 관리인에게는 예릉을, 탄생지 관리인에게는 탄생지 관리를 잘해달라는 뜻으로 금일봉을 전달하고 돌아오게 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씀으로써 우리 명씨대중회와 중국과의 관계는 아주 가까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나 실수담 등의 에피소드를 또렷이 기억해낼 만큼 친밀했었다고 그 당시를 회상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 명씨대중회와 중국대사관은 해마다 한 두 차례씩 만찬을 함께해오고 있으며, 현직 중국대사가 우리 사당을 찾아 시조황제께 절을 올리고, 기념식수를 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이 역시 명위진 명예회장이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특별히 잘 맺어온 덕분이다.

1996년 처음으로 명위진 명예회장이 중국 예릉을 방문했을 당시, 강북구청 측은 한사람 당 1달러의 입장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명위진 명예회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당신들의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데에 돈을 내는가라고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져 답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까지도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로부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다. 우리 명씨와 가까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현직을 떠났다. 명위진 명예회장도 그들과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야 할 분이 아닌가?

예릉과 탄생지기념관을 지키고 관리하는 정부 사람들이 모두 이미 새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도 새 사람들이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사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양국 간의 소원함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다. 중국은 시조 황제의 나라다. 우리의 시조, 명옥진 황제에 대한 존재감이나 관심은 중국정부가 제1회 국제학술회의 주제로 부상시킬 만큼 커지고 높아졌다. 지금 중경에서는 시조계서 세운 나라, 대하국의 황궁터가 발견되어 발굴 복원과정에 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명씨대종회 명노승 명예회장을 비롯한 명동성 부회장, 명광주 부회장은 명위진 명예회장이 이제까지 만들어 온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명위진 명예회장과 상의하였다.

명위진 명예회장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지금까지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오는 데에 기여해온 명노승 명예회장과 명동성 부회장, 그리고 명광주 부회장의 중국 급파를 결정함으로써 관계 개선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들은 수주 탄생지기념관, 중경 예릉, 그리고 중경 대하국 황궁터 발굴 현장까지를 숨가쁜 일정으로 돌아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 현직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채널을 구축했다.

또한 제1회 명옥진 국제학술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중국내 시조황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주목 이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상호 연구협력, 연구결과 교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돌아왔다. 앞으로 특사단 일행은 몇 차례 더 회의를 거치며 적절한 기구설치 등을 검토하게 된다.



명씨대종보 발행인

파안 명 위 진 명예회장

"시조 황제의 일생이 현궁지비에 쓰여 있듯, 오늘의 명씨 일생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파안 명위진(坡岸 明渭鎭) 명예회장은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명씨 역사를 신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첫 시작이 2012년 8월 31일(창간준비호 발간)이니, 햇수로 6년이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기에 많은 애착을 가졌던 명씨대종보! 그래서 일체의 발간비용을 당신 스스로 부담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 13호의 발행을 마치고, "누군가가 나의 뒤를 이어서 신문을 계속 발행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발행인에서 물러난다.

이제 우리는 명씨대종보 발행인 파안 명위진 명예회장을 명씨의 삶과 역사를 2012년 10월 26일 발행된 창간호인 제1호부터 이번 2017년 8월 10일 발행된 제13호가 발행될 때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준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며, 명씨 역사에 길이 남겨야 할 것이다.

〈명씨대종보 편집국〉

2017년 1월 20일,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명씨대종회 신년하례회 개최



명씨대종회는 2017년 1월 20일(금요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 2층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명태식 대종회장을 비롯한 대종회 임원진, 각 지방총친회장, 총무 등 3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했다.

신년하례회는 명태식 대종회장 인사말, 명광길 명예회장 인사말, 명동성 부회장 인사말, 지난 해 주요

사업 및 새해 예정사업 보고, 결산 및 예산 보고, 중경 시조황제 예릉 및 수주 탄생지기념관 추모방문 계획 소개, 대하장학회 명광주 사무총장의 대하장학회 장학 및 복지사업 집행과 예정사업 소개, 그리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종친 소개, 케익절단식, 신년축하 건배, 기념사진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종친들은 뷔페로 식사를 하면서 테이블을 오가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술을 권

하는 등 오랫동안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방에서 올라온 종친들이 차편 문제로 먼저 자리를 떠난 후에도 대종회 명태식 회장과 임원들은 행사장에 남아 한 해 동안 대종회가 해야 할 일들을 화제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2017년 신년하례회를 모두 마쳤다.

〈명씨대종회 사무국〉



대하장학회 명위진 이사장 중국 대사관 추귀홍 대사 초청만찬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명위진 이사장은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6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차움 3층 레트로아에서 대하장학회 명위진 이사장 초청 만찬회를 열었다.

만찬회에는 추귀홍 중국대사를 비롯한 김연광 부대사, 포옥휘 참사관, 등명부 서기관, 통역 등 중국 대사관 측 인사, 그리고 우리 측 명노승 명예회장, 명광길 명예회장, 명동성 부회장, 명광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신임이사장 취임기념으로 열린 만찬회에서는 중국대사관과 우리 명씨와의 돈독한 관계와 우의를 다지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자는 것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특히 우리 측 대하장학회 명위진 이사장과 중국 측 추귀홍 대사는 양측이 매년 상대국의 학생 2명씩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데에 합의,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와인을 곁들인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 자리에서 명위진 이사장은 효과가 좋다는 웨이셜크림을 즉석에서 차움에 요청하여 전달하려했으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추후 개인별로 전달할 것을 약속, 이후 중국 측 참석자 전원에게 전달하였다.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제1회 명옥진 국제학술연구토론회 참가, 논문발표

2017년 3월 2일~ 3월 3일, 중국 중경 삼협박물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중국 중경에 있는 삼협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명옥진 국제학술연구토론회"에 우리 한국 측 대표단 3명이 참가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에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발표된 논문은 모두 30편이며, 한국 측 참석자는 전순동 충북대 명예교수, 명노승 명예회장, 명광주 부회장으로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 전순동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4세기 후반 명나라와 조선, 그리고 고려와의 관계분석
- 명노승 명씨대중회 명예회장: 한국 명씨족보에 기재된 명옥진의 역사
- 명광주 명씨대중회 부회장: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명씨



중국 중경, 명옥진 황제의 대하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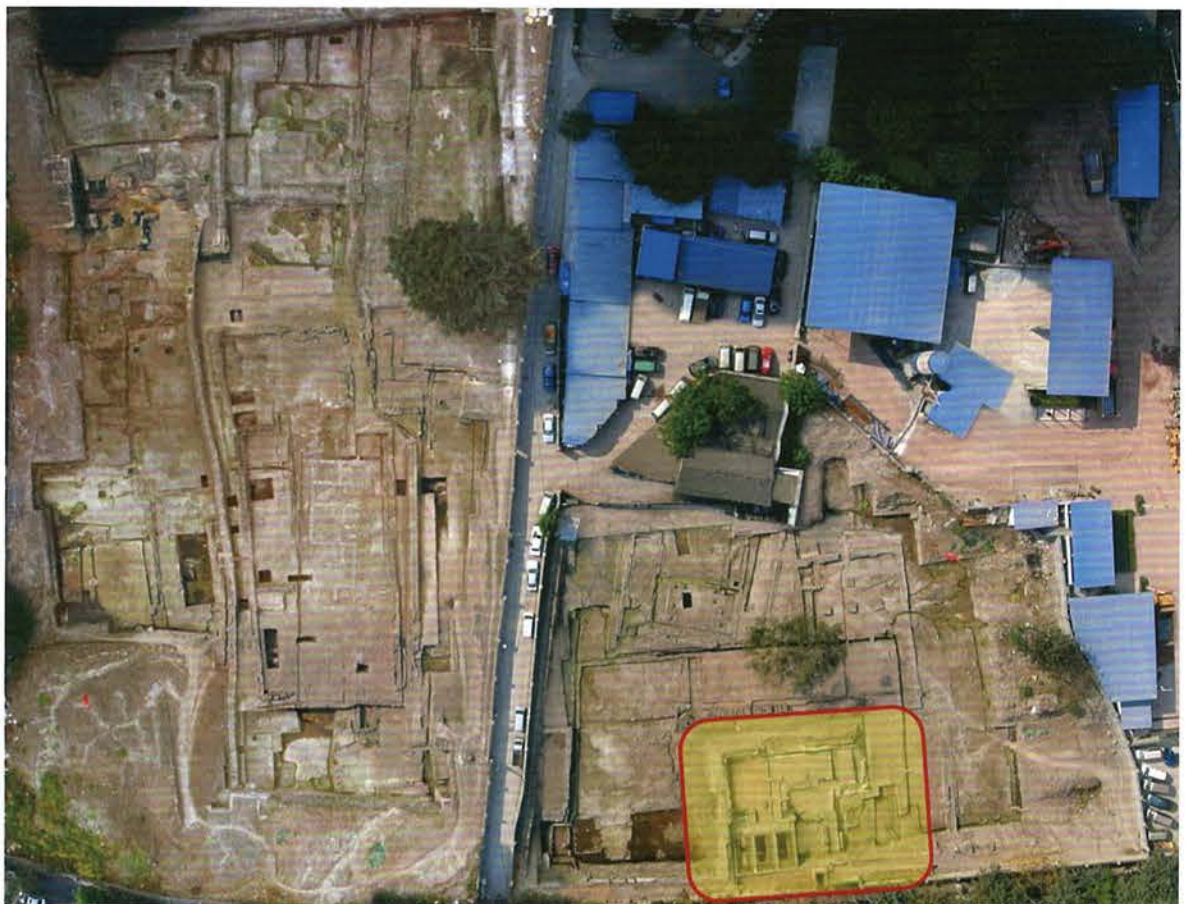
1363년, 시조 명옥진 황제가 세운 나라, '대하국'의 황궁터가 2010년 중국 중경시에서 발견되어 현재 발굴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황궁터의 발견은 시조 황제가 세운 대하국의 실체에 더욱 접근해 볼 수 있는 역사유물로서, 사료가치가 실로 엄청난 것이다. 황궁터 발굴소식은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중국 중경 삼협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명옥진 국제학술연구토론회'를 통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1회 명옥진 국제학술연구토론회' 한국측 참가자 명씨대중회 명노승 명예회장, 명광주 부회장, 전순동 충북대 명예교수는 논문발표를 마치자마자 '대하국 황궁터' 발굴현장으로 달려가 현지답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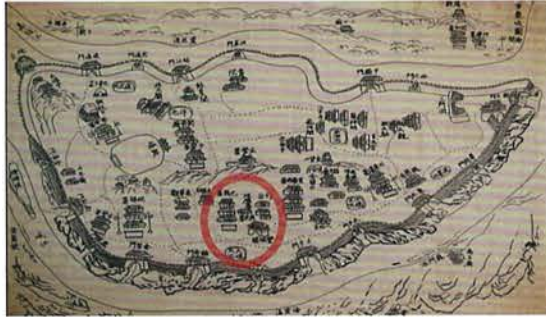


▶ 중국 중경 시내 황궁터 위치 (중경시 유중구)

▶ 하늘에서 내려다 본 대하국 황궁터
노란색 부분이 황궁의 한 쪽 문(누각)기단이 있는 곳



황궁터 발굴 및 복원공사 진행 중!



▶ 고지도에 나타나 있는 대하국 황궁터



▶ 발굴이 진행 중인 문(누각)의 한 쪽기단을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
현재는 발굴작업을 위해 황궁터 전체에 지붕을 설치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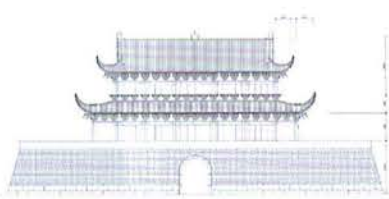
▶ 지붕 설치 전 황궁문(누각)의 한 쪽기단 모습.
기단은 불로 구운 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 대하국 황궁터를 현지 답사한 한국 측 논문발표자들과 중경시 문화유산연구원 원동산 부원장.
(좌로부터 전순동 충북대 명예교수, 명씨대중회 명노승 명예회장, 명광주 부회장, 중경시 문화유산연구원 원동산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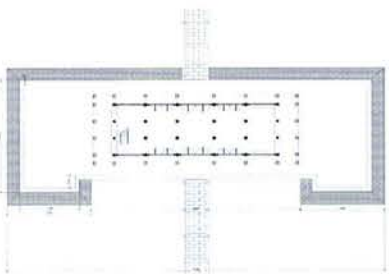
▶ 황궁문기단 벽돌에 새겨진 '순무기사' 라는 글자로 미루어 기단은 1245년 송대에 쌓은 것이며, 송과 원나라의 수도가 중경이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송과 원 당시는 왕궁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하국은 중경을 수도로 한 유일한 나라였기에 대하국 황궁터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대하국 명옥진 황제는 황궁을 다시 짓지 않고, 송 대의 왕궁을 이어 쓰는 검소함이 몸에 배인 황제였다. 오직 백성을 위해 선정을 펼친 어질고 청렴한 황제였다는 그의릉에서 출토된 현궁지비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南宋高台建筑复原正立面图



南宋高台建筑遗址复原效果图



南宋高台建筑台基复原平面图



南宋高台建筑遗址航拍照片

▶ 대하국 황궁 누각은 남송 시대의 건축물을 참고하여 복원하게 된다.
우측 상단 그림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누각을 복원한 모습
위 좌측은 누각의 입면도
아래 좌측은 누각의 평면도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2017 전기 장학증서 수여 및 이사회 개최 장학금 총 3,000만원 수여!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는 2017년 7월 7일, 서울 퍼시픽호텔 1층 행사장에서 2017년도 전기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오전 11시에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대하장학생 10명 전원과 대하장학회 명위진 이사장을 비롯한 명동성 이사, 명호근 감사, 명순식 이사, 명제걸 이사, 명광주 이사, 명순구 감사 등 전체 이사 10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이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장학회 이사들은 다정하게 인사말을 건네며 반갑게 맞았다. 특히 명위진 이사장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즉석에서 제안하는 등 장학생들에게 친밀감을 더했다. 장학증서 전달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명위진 이사장이 준비한 특별 스테이크 코스요리를 즐기면서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대하장학회 재단 이사회의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 대해 해임, 연임, 신임 등을 논의 후 회의를 마쳤는데,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교수의 신임이사 합류를 결정하였다. 신임 명승권 이사는 관할 파주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적인 등기 절차를 거쳐 임기 4년의 이사를 시작한다.



대하장학회 명위진 이사장 장학생 격려사-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들 속에는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에너지가 숨어있습니다

장학생 여러분!

우리 재단법인 대하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자랑스러운 대하장학생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하장학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9년 5월 13일에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매년 1억 내외의 장학금을 약 250여명에게 수여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늘 설레이며 기대감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대하장학회는 장학사업과 함께 2011년 7월부터 많지는 않지만, 매년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도 함께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 재단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생 중에는 이미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도 있고, 현재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학생들이 국내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처럼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 정말로 쓸모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으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하장학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주시고,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우리 대하장학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큰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우리들 속에는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명씨의 시조께서는 일찌감치 중국 원나라 말기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대하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훌륭한 분이십니다.

백성들에게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우셨고, 몸가짐과 정신이 누구보다 바르셨습니다. 오직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교육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도 그토록 어질고, 바른 황제가 없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핏속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명씨들은 중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사가 명씨 사당에 직접 와서 절을 올리고 갑니다. 명옥진 황제께서 이미 1363년 자신들의 나라인 중국의 황제이셨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가문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훌륭한 분이 우리의 시조이십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살아갑시다.

대하장학생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미래를 바라봅시다. 호 꿈을 크게 하고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를 키워시다.

우리는 황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쁜 것은 생각하지 말고, 따르지도 맙시다. 오직 훌륭한 것, 옳은 것만을 따르며 삽시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이사장 명 위 진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지혜로운 머리를 가진 능력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자신을 키우는 힘, 그리고 미래를 앞당기는 힘, 그 모두가 지혜로부터, 학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합시다. 그 끝은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하장학회가 주목하는 인재들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 발전에 힘써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대하장학회와 저의 역할을 이어받아 대물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하장학회가 인재를 키워내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넉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 공부합시다.

끝으로 저의 인재에 대한 철학이며, 장학재단 설립의 이유이기도 했던 2009년 대하장학회 설립 당시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소득을 가져다주는 투자요,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하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지금 그 생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부디 장학생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생각과 목표를 서둘러 만들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하장학회 이사장인 저를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발전과 성공을 다 잡히는 뜻에서 함께 큰 박수를 칩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7일

명씨대종회 종친 가족 일행 중국 예릉 및 탄생지기념관 추모방문



명씨대종회는 18명으로 구성된 651주기 시조황제 중국 예릉 시제와 탄생지기념관 참관을 위한 방문단을 구성하고, 2017년 3월 1일(수)부터 3월 7일(화)까지 6박 7일 간 중국을 다녀왔다. 이번 추모방문단은 예년보다 적은 수의 종친으로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어느 때보다도 시조황제에 대한 숭조의 뜻과 마음, 그리고 종친 간 따뜻한 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방문단 일행의 중국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월 1일

우리 추모방문단 일행은 CA440편으로 15:55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8:40 중경공항에 도착,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화정(제수용품을 주문한 식당)에서 삼겹살로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인 비엔나호텔에 투숙했다.

● 3월 2일

출발 전 계획에는 삼협박물관에서 열리는 제1회 명옥진 국제학술회의를 방청하고, 시조 황제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는 삼협박물관을 둘러볼 계획이었으나, 삼협박물관 측에서 국제학술회의 관례상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와 일정을 급히 변경, 우리 일행은 삼협박물관을 방문하여 시조 황제의릉에서 출토된 역사적 기록물인 현궁지비를 비롯한 유물과 예릉 발굴현장을 담은 사진기록, 그리고 2세조 승 황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고려방을 둘러보았다.

오후에는 금도협곡을 관광했다. 전설 속 금도협곡은 우리 시조황제와 관련이 있는 협곡이었다. 전설 속 이야기는 장곤이라는 나무꾼이 밤에 길을 잃었는데, 어디서 찬란히 퍼져 나오는 불빛이 있어 불빛을 따라 가보니 바위틈에서 빛이 새어나왔고, 그곳에 박혀 있던 칼을 뽑았더니 금으로 만든 칼이어서 금도협곡이 되었다는 것이다.

장곤은 하늘이 자신에게 금으로 된 칼을 준 것은 어지러운 원나라 말기, 천하를 위해 큰일을 도모하라는 하늘의 계시로 알고, 대하국을 세운 명옥진을 찾아가자, 시조 명옥진은 그 칼에 장금도라는 이름을 내려줬고, 장곤은 시조 수하의 장수가 되어 전공을 많이 세웠다는 것이다.

금도협곡은 험준한 바위와 숲으로 된 계곡이 연속해서 펼쳐지는 수려한 경관의 협곡으로 탄성을 절로 터뜨리게 하는 대단한 곳이었다.

이날 숙소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비엔나호텔이었다.

● 3월 3일

오전은 예릉에서 시조황제께 시제를 올리는 날이다. 우리 일행은 이번 추모방문단원이 너무 적어 시제에 꼭 있어야 하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 집사 4명, 그리고 사회자를 제외하고 나면 막상 제사를 지낼 종친이 많지 않을 것 같아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명노승 명예회장, 명광주 부회장, 전순동 교수, 그리고 중경에 살고 있는 명개부 회장을 비롯한 중화 명씨들, 그리고 뿌리를 찾아 멀리서 단걸음에 달려온 명홍, 명국씨 형제가 제사를 함께 올리게 되어 매우 다행스러웠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예릉에서 우리 한국의 후손들이 시제를 올리는 모습을 참관하는 것도 국제학술회의 일정 중의 하나이어서 50여명의 학술회의 참가자들이 일시에 시제를 참관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찌됐던 우리 일행이 숫자가 비록 적기는 하지만, 시제를 올리는 모습을 취재하는 여러 매체사 기자들, 강북구청 직원들, 인근 주민, 그리고 매년 자신들도 명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찾아오는 감씨들을 포함한 150여명이 뒤섞여서 시조황제의 동상 앞 시제를 올리는 마당은 매우 북적거렸다.

우리 일행은 정성을 다해 서울에서 준비해간 제수와 중경에서 만든 제수를 제상에 차려올리고, 홀기에 따른 집전관의 사회로 시제를 올렸다.

오후에는 기차 편으로 의창으로 이동하여 1박을 하였다.

● 3월 4일

오전에는 의창에서 버스 편으로 시조 탄생지기념관이 있는 수주시 수현 유림진까지의 꽤나 먼 장거리를 장시간 동안 이동했다. 지루할 만큼 오래 버스를 탄 때 문인지 느낌으로는 차창 밖에 펼쳐지는 경치가 웬만큼의 중국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였다.

시조께서 태어나신 유림진은 지금도 꽤나 한적한 시골이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원나라 말 백성들을 못살게 하던 이들은 이곳저곳에서 출몰하였으리라. 그들을 말로 달리며 일일이 물리쳐 빨간 황토흙 먼지 속으로 몰아넣고, 다시 또 이 머나먼 길을 종횡무진 가로질러 달려 나가 마침내 중국의 한 복판 중경까지 진출하여 대하국을 세운 늠름한 기상과 높은 뜻을 가지셨던 이가 우리의 시조 황제 아닌가, 시조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불끈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불편한 버스속이기는 하지만 나는 잠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 백성을 위해 홀연히 떨쳐 일어섰던 훌륭한 황제님이 나의 시조! 내가 그분의 후예이다. 부끄럽지 않게, 아니 자랑스럽게 살아야 한다!

어느덧 탄생지기념관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기념관 안에 모셔져 있는 시조황제의 영정 앞에 마음과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린 후 꽤나 넓고 큰 기념관 내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우리 일행 중 몇몇은 우리를 대표하여 수현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했다. 나머지 일행은 팔순을 맞은 명환주 고문과 여수 명경자 종친의 칠순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준비해간 생일 케익 앞에 둘러서서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는 깜짝 이벤트로 일행 모두가 즐거웠고, 맛있게 식사를 같이 했다. 종친 간 화기에애한 모습과 웃음이 그치질 않았다.

● 3월 4일

오후에는 수주시에서 무한으로 이동하여 무한에서 1박을 하면서 3월 5일에 있을 천주산 관광을 준비하였다.

● 3월 5일

우리 일행은 천주산으로 이동하여 관광을 시작하였다. 천주산은 해발 1,488m로 우뚝 솟은 돌기둥이 하늘을 떠 받치고 있다고 하여 천주산이라고 하였다. 양쪽의 커다란 돌기둥 위에 커다란 돌이 지붕처럼 얹혀 있는 구조 아래의 텅 비어 있는 공간이 등산길이 되는 아주 인상적인 곳이었다. 천주산의 등급은 AAAA 급으로, A가 4개나 붙어 있는 명산중의 명산이었다. 어디인가에는 앵가석이라 하는 앵무새가 노래하는 모습의 바위도 있었고, 할아버지 얼굴과 똑 같은 잠악수옹이라는 바위도 있었다. 그밖에도 코끼리 코를 닮은 상비석, 남자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양원석과 음원석 등 기암괴석과 나무가 어우러져서 매우 신기하고 볼거리가 많았던 관광코스였다.

● 3월 6일

우리 일행은 황학루를 관광했다. 우리 중국 방문단 일행을 몇 차례나 안내하면서 명씨 전담 통역사로 별칭이 붙여진 가이드인 이용남 씨의 설명에 따르면 신선이 마음씨 좋은 술집 주인의 집 벽에 학을 그려 선물을 했는데, 노래를 부르면 벽에서 학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 술집이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1,800년 유구한 역사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장소라고 하였다. 현재의 황학루는 100년 전 소실되어 새로이 중수했다고 한다. 황학루 회랑의 벽에는 여러 유명 시인들이 지은 시를 돌에 새겨 붙여 놓았는데, 의미는 알 수 없어도 하나하나 서로 다른 유려한 필체로 써내려간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오쩌둥의 글은 너무 유명해서인지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위치해 있어서 마치 중국내 그의 위치를 나타내는 듯했다.

● 3월 7일

우리 추모방문단 일행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CA 439 항공편으로 14:55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앞으로도 한 동안 우리 추모방문단 일행의 가슴 속에는 드넓은 중국 중원을 호령 하였던 시조 황제의 자랑스런 모습이 예릉과 탄생지기념관, 그리고 관광지의 모습들과 겹쳐서 남아 있을 것이다.

● 명씨대중회 중국 추모방문단의 일원으로 영원히 새겨질 추모방문단 일행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태식 임동분 부부, 명환주 이월임 부부, 명광길 서옥희 부부, 명노형 조남희 부부, 명수철 송순옥 부부, 명인호, 명정환, 명노석, 명제만, 명춘식, 명판식, 명홍재, 명경자 종친 등 총 18명.
(명씨대중회보 편집국)

재단법인 대하장학회가 2017년도 후기 대하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대하장학생 선발 신청:

- (1) 신청 자격:
명씨 성을 가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모친 명씨 포함), 또는 장학생 선발위원회 추천자
- (2) 제출 서류:
① 신청서(사진첨부, 양식 다운로드) 1부
②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자필로 기술) 1부
③ 주민등록등본(부모 형제 포함) 1부
④ 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 신입생은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대학합격증 및 등록금납입 확인서 각 1부)
⑤ 양 부모의 재산세, 소득세 과세 및 납입증명 각 1부
⑥ 양 부모의 연말정산 개인별 내역서 각 1부
⑦ 양 부모의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
⑧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3) 신청 마감: 2017년 9월 22일(금) 한
- (4) 장학금은 개인별 총2회 신청가능하며,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장학금이 다를 수 있음

2.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136-792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연구관 714호 명광주 교수
신청서는 반드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신청마감일 소인 유효함)

3. 선발 발표: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 발표

4. 기타 문의: 대하장학회 사무총장(010-4267-3610)

* 신청서는 명씨대중회 홈페이지, 또는 다음 대하장학회 카페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것
2017. 8. 10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이사장 명 위 진

재단법인 대하장학회가 2017년도 추석복지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1. 대하복지금 신청:

- (1) 신청 자격:
명씨 가족 중 독거노인, 극빈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생계곤란자
- (2) 제출 서류:
① 신청서(사진첨부, 양식 다운로드) 1부
②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자유롭게 기술) 1부
③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재산세과세증명서 1부
⑤ 장애인 증명서 및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지방중진회장 및 총무님, 그리고 신청자 주위의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대하복지금 수혜대상자들의 신청서 작성 및 접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3) 신청 마감: 2017년 9월 22일(금) 한

2.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136-792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연구관 714호 명광주 교수
신청서는 반드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신청마감일 소인 유효함)

3. 선정 발표: 장학금 및 복지금 지급대상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

4. 기타 문의: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명광주(010-4267-3610)

* 신청서는 명씨대중회 홈페이지, 또는 다음 대하장학회 카페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것

2017. 8. 10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이사장 명 위 진

2017년 5월 5일, 경기도 파주 대하파안기념관에서 제39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 참석 종친은 약 200명, 긴 연휴관계로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듯했다. 종친들은 행사시작 3시간 전인 8시부터 환한 얼굴로 행사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행사 1주일 전에 대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청소를 한 까닭에 밝은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행사가 열릴 대하파안기념관 1층 행사장 정면에는 산뜻한 색으로 된 대형 행사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좌우측에는 명륜회 명봉식 고문, 명성회 명을식 고문이 보내온 화환이 식장 분위기를 환하게 해주었다.

명씨 역사전시관이 있는 대하파안기념관 2층과 3층, 그리고 시조황제의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사당 앞마당에 모셔져 있는 시조황제의 동상 앞에는 명광주 부회장이 큰 꽃으로 된 화분을 가져다 놓아 황제상을 더욱 기품 있고,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하고 있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명제길 감사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이름표를 찾아서 걸어주고, 명지성 상임이사, 명한식 이사, 명광민 청양 청년회장은 다정하게 인사말을 건네며 종친들이 내는 찬조금을 접수해서 정리하고 있었다. 행사장 이곳저곳에 여러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이 잘 하는 일을 스스로 맡아서 해주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자원봉사, 명씨 일가의 행사이니 누가 맡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자신의 일을 척척 알아서 움직이는 기막힌 시스템이다.

행사 진행은 명인호 사무국장이 임기를 마친 까닭에 전임 명순식 사무국장이 맡았다. 정기총회는 예년

2017년 5월 5일

제39차 정기총회 열리다



과 마찬가지로 개회사, 국민의례, 대총회장 인사말, 내빈 및 지방총친회장 소개, 2016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그리고 대하장학회 명광주 사무총장의 중국 중경 대하국 황궁터 발굴 소식을 비롯한 대총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소개, 대하장학회 주요 사업 결과 보고와 예정 사업 보고,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기총회를 마친 종친 가족들은 명화진 상임이사의 지휘 아래 여러 대총회 임원들과 가족들이 준비한 맛있는 황제탕과 수육을 술과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황제탕은 대총회 행사 시 여러 차례 종친들에게 맛을 보여 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기가 최고였다. 비법이 뭐냐는 질문에 명화진 상임이사는 “좋은 재료와 정성” 이라고 답했다. 불 조절을 하며 황제탕을 끓이느라 밤을 새운 명화진 상임이사는 이른 아침부터 속속 도착하는 종친들에게 피곤함을 내색하지도 않고 수육 몇 점과 술 한 잔을 반갑게 권했다.

명화진 상임이사 외에도 주방일을 하는 명씨 가족이 여럿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힘든 일을 웃음을 잃지 않고 해내는 진정으로 고마운 주방일꾼들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손놀림이 바빴다.

신선한 식재료를 냉동차로 실어 나른 명영식 상임이사는 마주치는 종친마다 인

사를 건네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하는 해결사였다. 환경미화 단장격인 명노석 상임이사는 이번에도 행사장을 예쁘게 정리한 숨은 일꾼이고, 명영준 이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 1층 행사장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기술을 발휘해서 행사장 곳곳에서 소리를 잘 들리도록 만들어 놓았다. 명홍성 종친, 명영철 감사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종친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종친들 모두의 봉사와 참여 아난가 싶었다. 더 많은 종친들이 참여하고, 해결할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곧 우리 명씨와 명씨대총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더 많은 종친들이 함께 하길 마음속으로 빌었다.

정기총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종친들의 손에는 대총회장이 준비한 기념타올 선물이 하나씩 들려있었다. 지방종친들이 타고 올라 온 차에는 몇 가지 음식, 술, 음료수를 상자에 담아 실려 졌다. 정이 넘치는 모습이다. 하루를 함께 한 반가운 얼굴들을 뒤로하며,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3일에서 10월 21일로 연기된 시젯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각 지방에서 오신 종친 여러분들과 행사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임원들과 임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뒷마무리를 해주신 종친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한마음으로 화합을 이룬 명씨청양한마음운동회, 명씨 파워를 되살려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다!



명씨대중회 청양청년회(회장 명광민)는 2017년 6월 10일 오전 10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명씨청양한마음운동회를 열었다.

이날 운동회에는 청양지역 명씨와 가족은 물론 출향 명씨와 가족, 그리고 격려차 참석한 명씨대중회 명태식 회장 및 명광길 명예회장과 대중회 임원, 고문, 보령 중친회 중친들을 포함 약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한 판의 명씨 가족 모두의 잔치였다.

청양청년회는 행사의 성공을 위해 행사구성, 진행, 홍보, 상품확보,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한 후, 전담추진 위원을 임명하는 등 조직적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마을 별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가동하여 마을 어귀마다 프래카드를 내걸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석한 이들이 일체감을 갖도록 유니폼을 맞추고, 중친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찬조 받아 소포장으로 나누어 재포장하여 상품으로 만드는 한편, 일부 상품은 출향 중친들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자체 예산을 세워 구입하는 등 풍성한 느낌을 주는 성공행사로 만들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거듭하며 2~3개월 동안 집중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명씨대중회청양청년회 밴드와 명씨대중회 밴드를 연계하여 지역 담당별 행사 준비상황을 공유했고, 출향 중친들에게도 알렸다.

운동회를 기획하고 추진한 청양청년회장(광민)을 비롯한 청년회 고문 및 임원 그리고 중친가족(제협, 현상, 노을, 환민, 재향, 함식, 현식, 노각, 환민, 노규, 환산, 종식, 형찬, 노을, 상일, 승식, 재을, 재완, 한식, 노영, 경실, 명진, 미경, 소현, 란영, 노길, 조경화, 양길순, 정오돈, 구경순, 김순복 이상 무순)들은 청양지역의 명씨와 명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 화합하는 운동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중요 명씨 집성촌이자 명씨 역사의 중심지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지난날의 화려했던 청양의 명씨 파워를 되살려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운동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회는 대중회 행사에 버금가는 많은 인원이 모인 문화체육 복지행사로써 일거에 중친들은 물론, 청양지역 사람들의 주목 받는 행사가 되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운동회에는 이석화 청양군수, 정진석 공주 부여 청양지역

국회의원이 이른 아침 시간부터 참석하여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운동회가 열린 군민체육관 입구와 안쪽 실내 중앙에는 현수막이 걸렸고, 플로어 앞쪽에는 명위진 명예회장과 명노우 청양중친회장이 보내온 축하화환이 놓였다. 단상에는 명위진 명예회장이 보내온 족히 50년은 돼 보이는 대형 인삼주 병이 놓여 있어서 운동회가 열리는 동안 중친 가족들은 한 잔 술을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전문 사회자를 초청하여 진행한 이날 행사는 운동회뿐만 아니라 노래자랑까지도 재미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는데, 최우수상에는 명재황(남양면) 중친이, 우수상에는 명영식 대중회 산악회장이 수상하였다.

청양청년회는 명씨청양한마음운동회를 마친 며칠 뒤 고문 및 임원, 운동회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린 일꾼들, 그리고 청양지방중친회장(노우), 문장인 달식 및 공식 중친 등을 초청, 자체 결산보고회를 겸한 평가회를 갖고 식사를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청양청년회 임원일동〉





중경시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원동산의 명옥진 대하국 황궁터 발굴 연구논문

노고루의 유지 발굴 및 대하황궁 공간 구조 연구



중경시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원 동 산

중경은 선진(先秦) 시기의 파인(巴人), 명옥진의 대하(大夏, 明夏), 그리고 항일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던 민국시기의 '세 번의 수도' 였는데, 이것은 중경시 발전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다. 그 중 명옥진의 대하국은 수도를 중경으로 정하고 중경과 그 주변 서남지역을 통치하였다. 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유물 유적은 중경 문화의 맥을 이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사항이고 문화 포인트이기도 하다. 하지만 명옥진의 묘와 현궁지비를 제외하면, 다른 물질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하정권과 관련된 유적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과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2010년 중경시문화유산연구원에서 노고루(옛 고루라는 의미) 유적지를 발굴하였는데, 그때부터 대하국의 황궁 탐구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중경은 중국 서남부 지역 도시 중 걸출한 대표적인 도시로, 산과 물이 서로 의존하며 잘 융합된 도시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경 도시의 공간적 특징은 아주 선명하다. 황성(皇城) 및 평원 도시로서 내려온 중국도시 발전사를 표준으로 삼아, 중경 도시의 공간 구조와 역사문화를 평가하면, 중경시의 공간적 특징과 문화 전통은 희미해지고 소홀해지게 될 것이다.

그 자신의 독특한 도시 발전사와 서로 다른 특이한 중원의 공간 조성 방식으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정과 중요성을 평가받기가 어려워, 중경의 특색을 제대로 도출하거나 선양하기가 어렵게 된다.

2010년부터 중경시 유증구의 노고루 유지(遺址) 발굴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학문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우리는 중경 도시의 역사 공간에 대하여 하나의 기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고고학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출토된 고대건축기둥 구조분석을 근거로 하여, 중경의 고대 관아를 추정하고 복원을 꾀하였다. 이는 분명 앞으로 중경 도시 공간과 역사 재구축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중경은 중국의 서남 변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공간과 역사발전에서 모두 선명하게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은 중경의 도시 발전사상, 나아가 중국 고대도시 연구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1. 노고루 유지의 고고학적 관찰

노고루는 중경시 유증반도 최 일선인 중부 장강(양자강)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의 작은 지명이다. 8백여 년 이래 여기는 줄곧 중경의 정치중심, 중경부의 관아, 송과 몽골과의 전쟁시기 남송 서부전선 군사 지휘중심인 사천 제치사(制置司)의 관아였으며, 대하 황궁은 이 일대에 집중되어 정연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2010년 3월, 제3차 전국 문물 전면조사 당시 이 유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고고학적 발굴을 거쳐 송, 원대로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대량의 유적들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동남부의 송대 유적, 즉 흙벽돌로 쌓은 고대(高臺) 터가 제일 중요하다. 노고루 관아 유지는 배산임수(背山臨水)로 되어 있어, 중경지역의 특색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시 어느 정도로 세계 문명발전에 영향을 준 사천·중경 산성의 방어체계, 즉 이를 핵심으로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조성하였던

것이다.

국가 문물국 전문가들의 논증에 의하면, 고루 관아 유지는 남송 이래 역대 중경 관아 및 대하국 명옥진 시기의 황궁 소재지의 일부이며, 이것은 중경시에서 현존하는 유적 중 등급이 제일 높고, 규모가 가장 큰 관아 건축 유적이다. 이는 중경시 연혁의 변천, 중국 고대 서남 지역의 산지 도시 및 송, 몽(원)전쟁시 산성 방어체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중요한 역사, 과학, 예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 인하여 고루 관아 유지는 "제3차 전국 문물 일제 조사 백대 신발견" 및 "2012년 전국 10대 고고 신 발견"의 하나로 높이 평가 받았고, 2013년에는 국무원에서 이 유적을 '제7번째 전국 중점 문물보호단위로 정하여 공포하였다.

1) 노고루 유지의 기본 정황

2010년 4월부터 중경시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옛 자취가 남아 있는 고루 유지에 대하여 대규모적인 발굴작업을 시작하였다. 발굴 면적은 12,360㎡였다. 7년간의 작업을 거친 결과, 유지 규모가 웅대하고 문물 유적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지층 관계도 선명하다. 송, 원, 대하, 명, 청 다섯 왕조 시기의 관아 건축이 층층이 분포되어 있고, 유지에는 이미 방, 배수구, 우물, 도로, 회갱(灰坑) 등 각종의 유적 261개가 발견되어 이들을 잘 정리해 두었다.

일부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도자기, 화폐, 와당, 뇌석(옛날, 전쟁 시에 적을 치기 위하여 성벽 위에서 떨어뜨리던 큰 돌), 도가니, 철기 등 문물 9,000여점과 표본 수만 점이 발굴되었다.

송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경부의 관아 노고루는 유지의 동남부 쪽에 위치해 있었다. 발굴하는 동안 흙벽돌로 쌓은 고대(高臺)를 번호 F1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이번 발굴에서 제일 중요한 수확물이었다. 이 고대의 기지는 현재의 해방동로를 가로 질러 있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해방동로는 당시 대하 황궁의 중요한 중심축 선이었다. 현재 고대건축 기지는 3분의 1정도 발굴되었으며, 해방동로 이남 부분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에 발굴할 예정이다.

이미 발굴된 부분은 대략 평면사각형 모양을 보이고 있다. 남북으로 잔장(殘長) 24.3m, 동서 너비 24.7m이며, 보호용 축대 및 토대는 잔고(殘高)가 거의 10m에 이른다. 건축물 내부는 소형의 자갈과 황갈색 모래를 가지고 판축(板築) 기법으로 층층이 쌓은 토축이 있었고, 그 흙 안에는 대량의 기와 조각, 백자, 검은 유약을 칠한 흑유자(黑釉瓷) 및 청자의 조각 등의 유물이 남아 있었다. 판축 토성벽 둘레에는 가늘고 긴 돌 기초위에 청 벽돌을 한 장 한 장, 혹은 두 장을 빠져나오지 않도록 교차하여 쌓아 올려, 담벽 비탈면을 보호하였다. 아래로부터 위까지 층층이 쌓였으며 담벽의 경사도는 79° 정도였다. 담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벽돌을 좁고 긴 모양으로 쌓았고, 측면에는 여러 곳에 "淳佑乙巳 東寨城磚(순우을사 동요성전)", "淳佑乙巳 西寨城磚(순우을사 서요성전)" 등의 문자를 음각 또는 양각하여, 제작 연대와 장소를 표시하였다.

고대가 세워진 터의 동북쪽 한곳에서 규모가 크고 구조가 정교한 돌로 된 배수구 시설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너비가 23미터나 되는 긴 토담이 금벽산(金壁山)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이 토담이 자성(子城)의 성곽이거나 고대 양옆 성곽을 대신하는 건축물의 기초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고대건축 터의 긴 토담의 발견으로,

우리는 관아의 사면 둘레에 성벽과 건축물을 합성으로 한 하나의 자성 공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고루의 성격과 연혁

누각 건물 터의 구조와 특징은 봉절현 영안진(奉節縣 永安鎮) 유지 및 합천 조어성(合川 釣魚城)에서 발견된 송대 유적과 비교적 잘 일치한다. <영조법식(營造法式)에 있는 관련 제도과 서로 인증이 된다. 기년 명문 및 출토된 유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건축 시작 연대는 송나라 이종(理宗) 순우 5년(1245년)이다. 역사상의 기록에는 순우 3년(1243년) 봄 남송 병부 시랑 여개(余玠)가 금벽산 아래 중경 관아에 사천 제치사를 두었다고 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보아, 유지는 분명히 남송 사천 제치사 및 중경부 관아 치소였을 것이다. 고대 건축 기지의 성격과 기능은 당시 관아 건물의 "초루(譙樓)" 겸 "망루(望樓)"이다.

남송시기의 초루는 관아의 주요 예의 건물이었다. 고고학적 연구가 점점 심도 있게 진전됨에 따라, 중경문화유산연구원은 관련 유산 및 고건축 연구 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유적에 대한 복원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이 모두 인정하기를, 이 구역이 남송시기에는 사천·중경지구의 군정중심지로, 곧 사천 제치사 및 중경부의 치소였고, 원나라 때에는 중경 선위사 관청이었으며, 대하국 시기에는 명옥진 황궁이었고, 명 청대에는 중경부의 서치소였다는 것이다. 초루는 위의 각 시기 아문의 대문으로, '아문루(衙門樓)'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초루에 대한 고고학적 결론은 관련 연구단체의 의견이 합치되기도 전에 초루의 방향까지도 거듭 검토하고 수정하여 나온 것이다. 원인은 성문루가 훼손되고 초루의 터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고고학적 유존, 아울러 초루 대문의 방향까지도 직접 드러나지 않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고고학의 매력이지 아니겠는가!

역사상 많게는 2급, 심지어 3급 정부 모두가 유중반도에 주재하였다. 중경의 일반 시민이나 극소수의 연구자들을 막론하고 흔히 현과 주의 관청, 상 하 두 관청의 역사적 사실과 유산을 혼동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상 이러한 것들은 구분이 아주 분명하다. 본 글에서 연구한 초루는 역사상 모두 존재한 주(州), 부(府) 및 그보다 더 높은 단위의 관아 대문이었다. 이들 정부는 파현 아문과 지리 위치가 가까운 것 외에, 실제 각 정치의 독립 정체 및 공간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다(파현 아문의 공간적인 틀 및 역사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 연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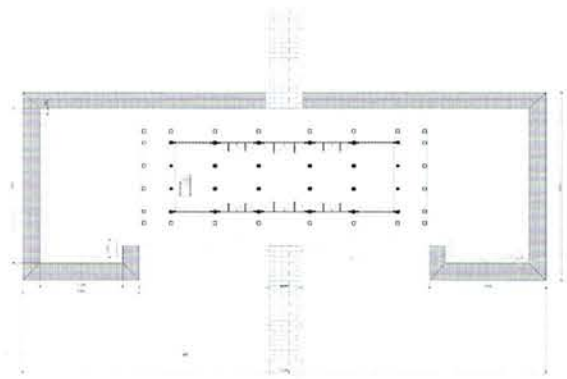
노고루가 발굴되기 이전, 중경 관아의 방향은 모두 파현 관아문과 일치하였다. 뒤에는 금벽산이 있고 앞에는 장강을 대하는 그런 식이다. 즉 서북쪽에 자리를 잡고서 동남쪽을 향하고 있다. 세상에 알려진 청나라 말기 <중경부치전도(重慶府治全圖)> 3개의 판본 중 국장판(國璋版) 또는 장훈현(張雲軒)판, 유자여(劉子如) 판본은 내용이 모두 대동소이다. 다만 두 가지가 공통되고 있다.

첫째, 노고루의 건물은 방향이 명확하고 그 규모가 거대하며 보존 상태가 온전하다. 다만 유자여의 지도에 "풍서루(豐瑞樓)"로 표시되어 있고, 장운현의 지도에는 "노고루(老鼓樓)"로 수정되어 있다. 청 도광 <중경부지> 권2에는 청나라 건륭 24년에 중경부의 관서를 재건할 때 "또 관아 북쪽에 초루를 건설하고, 편액을 '신풍(新豐)'이라 하였으며, 남쪽으로 풍서루와 대칭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군수 서민(書敏)이 이번에 개수하면서 "신풍루"라는 새로운 고루가 창건되었고, 원래 있던 고루 풍서루는 자연히 '노고루'가 되었다. '노고루'는 일종의 일반적인 속칭일 가능성이 크다. 이 건물은 사람들의 기억과 시선에서 차차 중요성을 잃어가게 되었고 그 본래의 명칭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갔다. 지금까지 부르던 속칭 '노고루'라는 이름은 백여 년이 지난 후 심지어 장운현이 쓴 <중경부치전도>에서 이 건축물 명칭은 끝내 중경 옛 도시의 한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고고학

자들에 의해 질게 깔린 안개가 걷히고 원래의 역사로 원상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다.

둘째는 노고루 문루 안에 서민이 새로 건축한 많은 관아는 건륭24년(1759) 이전에 노고루가 외성에 에워싸인 자성(子城)이 되었고, 또는 관아 대문의 향이 되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중경부 관아의 공간 배치를 보면, 설령 고대사회라 하더라도 관아의 홍망성쇠가 흔히 일정한 공간 범위 내에서 전승되어졌다. 마음대로 관청을 옮기거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군수 서민의 관아에 대한 대규모의 공간 조형에서도 관아의 위치를 바꾸지는 못했다. 다만 범위를 줄여 전체를 소량으로 나눔과 동시에 건물의 향과 중심선을 개편할 뿐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노고루는 좌향이 동북으로 되어 있고 서남쪽을 향해 있었으며, 장강의 역 방향으로 문이 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발굴된 구역은 이 초루 우측 돈대의 4/5이고, 아직 미 발굴된 구역은 1927년 임삼로(林森路, 현 해방동로)를 확장할 시기 허물어뜨린 우측 돈대의 1/5과 대문 및 원편 돈대이다. 발굴 과정 중, 건국 전후에 좌측 돈대 잔여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초루의 너비가 해방동로의 너비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융창지산(融創地產) 회사가 담당한 백상가(白象街) 개발구 초루 분포 범위 및 인근지역의 발굴은 곧 초루 규모 및 근대 중경 자성의 서남 경계를 명확히 한 최후 기회가 되었다. 이미 정리된 우측 돈대 부분에는 안의 빈 공간에 문 옆으로 난 방, 문숙(門塾)이 있다.



중경 노고루 초루성기좌의 평면도1:100

추측컨대 두 개의 돈대는 대칭되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사이 지붕이 있는 통로는 너비가 최소 5미터 이상 될 것 같다.

이미 발굴된 건축물의 기둥자리 배열 분석과 동시에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 초루는 혈산식(歇山式) 지붕으로 되어 있고, 청당식(廳堂式) 이층의 목조 건물이며,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되어 있고 주변을 부속 처마로 둘러싸고 추정되고 있다. 아래 성대(城臺)의 총길이는 71.6미터 이상이고 총 폭은 25.8미터이다. 성대에는 문도(門道, 지붕 있는 통로)가 각각 하나씩 나 있고, 내부 공간 좌우에는 문숙(門塾, 문간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두개의 문간방은 성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데, 길이는 16미터, 폭 3.7미터이다.

아마 이미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성루로 올라가는 기능을 갖추었고, 계단은 성대에 이르는 곳인데, 어쩌면 협루(狹樓)가 세워졌을 것이다. 중경의 노고루의 면적과 규모는 현존하고 있는 정부 급 관청, 초루의 규모보다 훨씬 컸으며, 명,청 시대의 황궁에 육박할 정도다. 흡사 작은 천안문 성루 기좌 같으나, 관례적으로 생각하는 규모를 뛰어 넘는다. 당시 중경이 남송 서부전선에서 송원전쟁의 지휘 중심에 있었다는 정치적 위상과 변방의 군사를 담당한 여개의 개인적 풍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고루는 순우 을사, 즉 송 이종 순우 5년(1245)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마침 사천 제치사 여개가 중경을 집권한 시기로, 고고학적 발굴로 확인된 바, 이 건축의 기초는 건축할 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개조하지 않았고, 내부구조도 줄곧 처음 건축시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진 흙층에 포함된 물질이나 벽돌에 새겨진 명문과 관계없이, 시간은 가리키는 방향이 아주 정확하고 일치한다. 이런 온전한 구조는 반대로 송원 전쟁 시기의 원군이나 명옥진의 홍건군이 중경으로 진군해 왔을 때 강렬한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루는 전화를 입

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의 변화가 심하고, 물과 불은 사정을 보아 주지 않기에, 위의 성루와 두 개의 돈대 사이에 지나는 길(門洞)이 여러 차례 훼손되었다가 건립되는 결과가 되었다.



흙더미를 모아 넣고 벽돌로 쌓는 식의 고대 건축기법

청대 중경의 도시지도 보면, 처음 건축시기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적어도 원말 연우(延佑) 3년(1316년)의 "관청 건물의 십중팔구는 불에 탔다"라고 하고 있듯이, 그 때 큰 화재가 있었는데, 고루도 아마 그 재난을 면하지 못한 것 같다. 이 화재는 중경군의 관아 건물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연구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지만, 두툼하게 한 층 깔려 있는 붉은 색의 불에 탄 흙이 연속하여 파현 아문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관아 건물에서 일어난 대 화재가 끝내 고루에서부터 파현 아문까지 연이어 연소되었고, 동시에 노고루대의 초석과 기둥 구멍 안에 이 시기 화재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고루의 2개 돈대가 의연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고, 개조된 것은 성의 문루와 문도뿐이다.

청의 도광(중경부지) 권2 재누호대(載漏壺臺)에 "중경부 치소의 초루 위에 물시계가 명 홍무(1368-1398) 시기에 처음 세워졌다."고 되어 있고, 아울러 명 만력11년(1583) 중경부 통판 장계명의 중수누호기(重修漏壺記)에 "太祖混一寰宇, 頒漏壺式于天下, 酌古定制.....自洪武十四年渝郡奉而創之鼓樓(태조 홍무제가 온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고, 옛 확립된 제도를 참작하여, 천하에 누호(물시계)의 법을 반포하였다.....홍무 14년부터 중경군이 받들어, 거기에 고루를 세웠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두개의 문헌에서 명초 시기 초루는 이미 소리 없이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초루는 관아 대문의 위엄성을 충분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물)시계를 담당한 전문관리인 사루(司漏)가 시간을 알리고, 북을 쳐 시각을 전하는 그런 기능을 증강시켰다. 또한 새로운 이름 '누호대(漏壺臺)'가 있었는데, 명 태조 홍무14년(1381년)에 생긴 이런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득 "옛날 귀족 왕씨(王氏)와 사씨(謝氏) 집 앞의 제비가 일반 백성 집에 날아드네"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동시에 명 홍무 14년부터 누호를 고루위에 설치하였고, 만력 년간에 이르러 훼손되어 있어 부득불 중수하였으며 비로소 장계명이 이를 기록하게 되었다.



중경 노고루 초루 정면도

청 도광(중경부지) 권2에는 "豐西樓即故譙樓 (풍서루는 곧 고초루이다)"라 하였고, 청의 강희 47(1708)년 중경 지부(知府, 중경부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관직) 진방기(陳邦器)의 '고루 중수기'에는 ".....荒殘街舍 聽其聊蔽 風雨而已. 然鼓樓實郡治觀瞻, 司漏傳更非官居私署可比, 生財福德攸關, 亦與學舍城隍相等....落成之日, 題曰豐瑞, 翼時和年豐, 長爲吾民禱瑞也.(황폐한 관아, 그것은 비바람을 피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고루는 실제 관에서 수리해 주기를 바라다가 비관료가 거주하는 민가보다 못하게 되었고, 재물 늘어나는 일이나 복덕이 다 여기에 관계된 바이며, 학교나 성황묘 등과 그 지위가 대등하였다.....고루 낙성식 날에 이 건물의 현판을 '풍서루'라 하였는데, 시화연풍하고 우리 백성에게 상서스러운 일이 길길이 있기를 바란 것이다)"

이번 중수 후에, 중경 지부(주의 우두머리) 진씨는 다시 '풍서루'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었다. 건륭 24(1759)년에 새로운 풍루 곧, 신평루가 준공 되자, 초루는 마침내 '노고루(노고루)'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청 일대에 옛 고루는 적어도 4차례 보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상 소개한 두 차례 외에, 강희8년(1669) 지부 여신(呂新) 및 강희22년(1683) 지부 손세택(孫世澤)이 각각 보수하였다. 청대에 보수한 기록을 볼 때, 청초에 가장 빈번하였고, 그것도 14년간에 두 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졌다. 진방기와 서민 사이에 보수 간격이 제일 긴데, 그 기간은 51년이나 된다.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124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50년간, 옛 고루의 보수는 아마도 이삼십 여 번은 된 것 같다. 남송의 제치사 설치, 대하 입국(立國), 항일 전쟁시 수도, 중앙 직할시로서의 중경은 중경의 도시 발전사상 4차례에 걸친 대도약의 시기였다. 노고루는 마치 한 역사를 살아온 노인처럼 역사 현장을 목격한 산증인일 뿐 아니라 중경을 "영웅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버팀목인 것이다.

이상의 토론을 근거로 우리는 노고루의 변천의 궤적을 그려 낼 수 있다. <송원시대에서 대하국 시기까지> 초루 → (명 홍무14년부터 청나라 강희47년까지) 누호대 → (청나라 강희47년부터 건륭24년까지) 풍서루 → (건륭24년부터 1927년까지) 노고루 → (1927년부터 건국시기까지) 결손된 이후부터 중경으로 바뀐 하나의 소지명 → (건국 후 문화 혁명까지) 그 이름은 알지만 실체는 사라짐 → (문화 혁명부터 2009년까지) 중국 약제회사의 부지 → 2010년 유지 발견

2. 대하 황궁의 범위 및 공간 격식분석

노고루 유지의 고대(高臺) 건축 터의 발견과 중경부의 관아 초루에 대한 인식이 확립과 그 연혁을 정리해 보면, 특히 송나라 이래 중경부의 관아는 장강을 거슬러서 문을 내었다는 중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환희와 동시에 또 하나의 난제를 안겨주었다.

중경 문화 역사학과와 청나라 후기 대량으로 존재하는 문헌 자료들은 모두 중경 관아가 뒤로 금벽산을 배경으로 하여 장강을 앞에 두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나타난 관아의 방위는 전통적인 인식과 85도의 각도차가 나고 있어, 고고학적 성과와 전통 인식 간에는 오직 어느 하나만이 정확한 것이라 여겨지기에 우리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만약 고고학적 성과를 열쇠로 한다면, 지방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 보아야 이 모순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도광(중경부지) 권2, 여지·공서(公署)에 그 변화를 서술하여 말하기를 중경부 지부 관아는 "태평문 안에 있고, 송대 가태(嘉泰, 1202-1204) 시기에 건립되었다. 원나라 말기 명옥진이 궁궐로 사용하였다. 명 홍무 초기, 군수 원유진(袁維眞)이 개수하였고, 명나라 말기에는 병관으로 소실되었다. 그 후 강희 8년 군수 여신명이 중건하였다. 원래는 남향이였으며, 우측으로 금벽산에 의지하였고, 강주(江州)와 연결된 맥이었다. 원편으로 백상거리 민가와 인접해 있고 항상 화재의 우려가 있었다.

건륭24년 군수 서민(書敏)이 관아를 산 동쪽으로 이전하고 남향으로 재건하였다. 금벽산당 앞에 신평거리라는 골목길을 만들어서 관과 민들을 편리하게 하였다. 관아 북쪽에 초루를 만들어 '신평'이라 하고 남쪽의 풍서루와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만력 중경부지 도시지도

도광 <중경부지>의 도시지도가 중요한 것은 건륭 24년 중경 지부 서민이 관청을 대 규모로 개조한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 1) 관아의 면적을 축소하고, 백상거리 원 관아의 축선을 신평 골목길로 개통하여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였고 신평거리 골목길 동남쪽으로 장강에 면한 일대를 양도하여 관민들에게 편의를 주었다. 호광회관 등 새로운 건축물의 출현은 이런 변화로 인한 결과물이다.
- 2) 현재의 도로 입구와 노고루 사이에 천동도(川東道), 부성황묘, 현 문묘(공자의 사당), 현 성황묘, 2부아, 중경부, 행대(아사대), 경청 등의 부서를 건설하여 측면으로 옛 관아의 범위와 방위를 반영하였다.
- 3) 신평거리 동북쪽으로 건설한 '신평루'를 곧 '신고루'로 하고, '풍서루'를 고쳐 '노고루'로 개명하였는데, 이로써 '노고루'는 중경 정치 지표의 사명을 끝마쳤다.

사실 이 단락의 문헌을 해독하는데 관건은 방위이다. 장강, 금벽산 및 관청 근처의 성벽, 백상거리, 신평가 골목, 이 모두가 동북 서남 45도로 향하여 있고, 모든 서술은 관청을 주체로 하여, '좌', '우' 두 글자를 사용하여 금벽산과 신평가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관청도 당연히 그렇게 하였다. 강과 산, 거리의 방위는 일치하며, 동북 서남 45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강을 향하거나 강을 등지거나를 막론하고 동남과 서남 방향 밖에 없다.



중경부 중경 도시지도

청대 다시 개건한 후, 관청의 분포 범위와 노고루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또한 문헌에 기록된 서민의 개조 사실 등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군수 서민이 관청의 기축선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85도 선회시켜 역강으로부터 강을 면하게끔 개조하였다. 이 문헌에서 묘사한 "동" "남" 두 글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헷갈리게 한다. 이 두 글자는 연결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청은 금벽산 동남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동시에 관청의 방위도 동남 방향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때 군수 서민이 중경 관청에 대한 철저한 개조는 바로 방위를 개변하고, 면적을 축소하며,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는 일에 불과하였다. 비록 문헌적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남"자의 해독 착오로 말미암아 서남에서 동남으로 변하였다. 결국 중경은 큰 도시임에도, 이런 근대의 거대한 공간 건축 사건의 전체적인 실연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중경에 관하여 볼 때, 청나라 건륭24년(1759) 이전은 중경부 관아의 방위 문제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옛 초루가 직접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도광<중경부지>에 명확한 기록이 있고, 상해 도서관에 소장된 만력 <중경부지>에 명시된 중경부성 지도에도 중경부 관아를 강을 거슬러 건설된 방위로 표시하고 있어, 적어도 명 말기의 중경 관아는 남송 이래의 위치와 방향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옥진이 세운 대하국의 황궁은 동북쪽에 자리 잡고 서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좌측은 백상거리에 따라 있고 오른쪽은 금벽산에 의거하고 있다. 발굴된 초루 및 금벽산으로 향한 판축 기법으로 쌓은 토성은 고고학 발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진실하고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이것은 황궁의 서남변으로, 최전방이고, 대문이다. 이와 서로 대응한 것이 징청루(澄清樓)로, 황궁의 후면이고, 동북변이다. <건륭 파현지> 권1, 고적 조항에 여개가 초현관을 수리 할 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招賢館 館址無存 或云在澄清樓側(초현관, 초현관의 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말하기를 징청루 측에 있었다고 한다). 澄清樓: 通志在朝天門內, 攬秀環翠 俯瞰大江. 按樓在朝天門內第三門洞之右城上. 明末毀于張獻忠, 今舊址入居民, 或以朝天門城樓爲澄清樓 非是(징청루, 통지에 이르기를. 조천문내에 있다. 관상이 수려하고 아름다우며 큰 강이 내려다보인다. 그 풀이를 보면, 누는 조천문내 제3문의 오른쪽 성 위에 있다. 명말 장헌충 군대에게 훼손되었고, 지금 구지에는 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혹은 조천문 성루를 징청루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징청루는 이미 가까이 있는 조천문 제3문 부근에 있었으나 사천 제치 대사 여개가 건축한 초현관은 서북쪽으로 중경부에 이웃하고, 동쪽으로 징청루에 가깝다. 명옥진 황궁은 원래 남송 시대 중경의 사천 제치사의 관아였는데 대하 황궁 후 대략 조천문 3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약 황궁 좌측의 수부궁(水府宮)을 경계로 한다면, 우측은 장안사였을 것이다. 건륭 <파현지> 중경성을 그린 지도 속에 수부궁은 부단히 건축하여 규모가 거대할 뿐 아니라 또한 방향도 노고루와 일치하여 주변의 건축물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 이것을 중경부 초루 전체의 건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래 프랑스에서 발견된 <유성도(渝城圖)>에는 수정궁을 아주 작게 표시하였고 방향도 청나라 후기의 관아문과 일치한다. 이는 다른 시각에서 반증해 보면, 수정궁은 어쩌면 황궁의 일부분으로 보았을 것이고, 군수 서민이 개조한 것도 수정궁에 파급되었을 것이다. 중경 지방사 자료 총간 <명옥진 및 그 묘장 연구> 가운데서 서문빈(徐文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 "명옥진이 세운 대하는 정권 창립 초기 주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 정부에 6경을 두고 천통(대하국 연호) 3년에 이르러 이 6경을 중서성, 추밀원제도로 바꾸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중경시 중구 장안사는 6경 관아의 소재지였다"고 했다.

서문빈 선생이 장안사에 대하여 대하국 6경 관아의 소재로 판단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두 가지만은 교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하나는 장안사가 원래 황궁의 범위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향이 바로 황궁과 일치하나, 주변 다른 건물들과는 상이하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이는 그냥 우연이 아닐 것이다.

장안사의 원래 이름은 송인사다. <촉중명승기(蜀中名勝記)·중경부 파현 부곽(附郭)>에 이르기를: "治西八十里 爲長安洞, 乘燭深入可里許, 見雙石礮龍. 過此即皆淳泓積水矣. 相傳崇因寺前 居民屋內有洞與此通 故崇因寺亦謂之長安寺也(치소 서쪽으로 80리 이르는 곳에 장안동이 있다. 촛불을 켜고 거의 1리쯤 깊이 들어가면 용같이 생긴 쌍 석돈을 볼 수 있고, 거기를 지나면 곧 모두 물속에 깊고 거기에 깨끗한 물이 고여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송인사 앞에는 주민들이 사는 집안으로 동굴이 나 있어 이것과 통하였다. 그러므로 송인사를 또한 장안사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또한 <일통지>에 이르기를, 송인사는 "파현 북쪽 1리에 있다"한다. <파현지>에는, 장안사가 치소 북쪽에 위치하고, 송 희녕 초(11세기 초)에 건립되었으며, 명·청대에 모두 중수하였다. 사찰 대문에 사천왕을 조각하여 놓았고, 그 안의 패방(牌坊)에는 "제1산"이라는 세 글자가 있는데, 소동파 서체라 전해진다. 청나라 동치 3년(1864년) 프랑스 선교사가 천주교회당을 지으려하다가 시민들의 강렬한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국 7년에 불학사(佛學社)가 되었고, 항일 전쟁시기 이 절은 일본 비행기에 폭파당했다. 해방 후 원래의 터에 중경시 제25 중학교를 세웠다.

만약 이런 추리가 합리적이라면, 노고루에서 징청루에 이르기까지, 백상거리로부터 대양자산(大梁子山) 앞까지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범위 내에, 이미 역사상 존재하였고, 길이 약 900미터, 폭 200미터 정도의 명옥진이 세운 대하국의 황궁



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술은 이미 고고학적 발굴과 문헌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리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발전사에 있어서 상식적인 판단이다. 비록 황궁은 중경 군수 서민의 개조로 말미암아 자취를 감추었지만, 다만 그 지역 범위가 남송 이래 계속하여 중경 모성(母城)의 정치, 문화중심이 되어 왔다. 특히 노고루 관아 유지의 발굴과 연구는 황궁의 존재와 그 공간 구조의 실마리가 되어 점차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명옥진의 대하 황궁은 송, 원 중경 관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구조는 송, 원 중경 관아와 별 차이가 없다. 금벽산 위의 장안사는 명옥진 시기 황궁 범위 내에 있었을 것이다. 여타 부분 특히 주축선상의 공간은 송, 원시기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송대 관아 공간 배치는 <경정 건강지>, <함순 입안지>, <가정 적성지>, <임주도경> 평강부도비(平江府圖碑) 등 제 자료의 연구를 통하여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관아 공간은 일반적으로 전부, 중부, 후부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전부는 위엄과 의례적 격식을 갖춘 공간이다. 초루, 의문, 계석, 명 등이 있고 이어 설청(設廳, 고대 관부) 앞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은 공간이고, 지형적으로 보아 길이는 300미터 이상이 되는데, 대략 노고루로부터 오늘날 취흥성은행(聚興誠銀行)이 있는 부근까지이다. 이 일대는 민국시기까지 쪽 이어 내려왔으며, 서서히 올라가는 완만한 비탈길로,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작은 대지가 남아 있다. 설청(設廳)은 취흥성은행 부근인데 이 일대에는 현재 아직도 하나의 작은 고대가 있다. 중부는 설청에서 퇴청(二堂)까지로, 행정 공간에 해당하며 약 300미터 정도 된다. 후부는 생활공간이며 초현당(招賢堂) 등의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략 300미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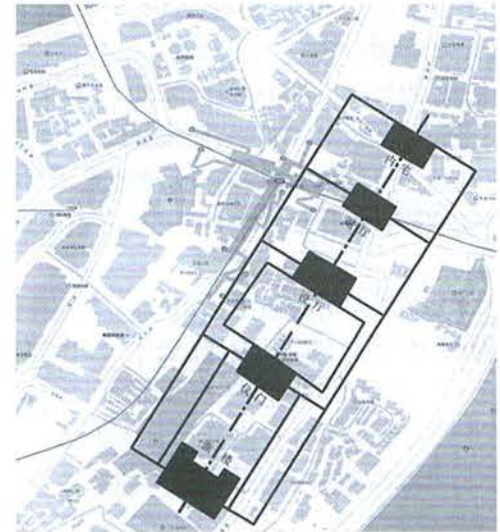
명대 전기에 이들 관아는 변화된 듯하다. <명태조실록> 권138의 기사에, 임술년에 사천 포정사가 말하기를 "중경부의 옛 치소는 명씨(명옥진)가 거주하던 곳이며 명씨가 귀순한 이래 자못 파현의 지현 관아가 된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옛 치소가 훼손되었으나 오직 저 자신이 정사를 펴고 있습니다. 청하전대 옛날과 같이 관청을 두어, 편히 다스려지게 하소서라고 청하였다. 황제가 이를 따랐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는 원래 대하 정권의 황궁이어서 명초에는 중경부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황폐하게 되었다. 다만 설청 등 몇 개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리 보수를 한 후 거기에 들어가 일을 보도록 요구되었다. 지방 관원들은 복구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반응하였기에 관아 면적이 좀 줄은 듯하다. 적어도 이전 원래의 생활구역은 아문 밖으로 넘어갔다. 만력 <주중경부지의 도시 지도>는 관청 뒤쪽을 도로 입구 일대에 표시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군수 서민이 개축한 후의 관청 범위와 아주 비슷하다.

대하 황궁은 마침 중국의 자성제도가 보급되던 송나라시기에 세워졌다. 노고루 일대의 고고학적 발굴로 볼 때, 초루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굴된 부분은 판축으로 쌓은 돈대에 연결되어 있다. 이 돈대는 건축 기초, 혹은 담벽의 기반을 불문하고, 모두 도시 봉쇄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봉쇄공간을 마련하였으니, 이것은 당연히 자성이다. 당시 도시 건설계획과 고고 발굴의 실마

리들을 보면, 중경시의 통치 중심이었고, 이것은 당연히 근대 자성의 존재이어야 한다.

도광 <중경부지> 권2 여지·공서에 실려 있기를 중경부 지부의 관청은 "태평문 내에 송 가태년 간에 지어졌다. 원말 명옥진이 황궁으로 사용하였고, 명 홍무 초기 군수 원유진이 개축하였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매우 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 1) 송 영종 가태년은 총 4년간(1201-1204년)으로, 자성(子城)의 건설시기가 정확하다(기타 별도의 간접 증거를 전문적으로 인용하여 관청 건립 연대를 가태 2년 이전으로 확정하였다).
- 2) 그것은 대하국의 황궁이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 3) 명나라 초에 개축이 이루어졌는데, <명 태조실록>에 반영된 지방 관원들의 심리 상태에서 당연히 관청, 즉 자성의 면적을 축소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 중경의 모성(母城, 위성도시에 대한 대도시)은 유중 반도의 최전면, 높은 언덕 위의 제29중학교 일대이다. 송 가태년 간에 도시의 공간 개조가 이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기관이 아니고 관아가 별도로 부지를 선정하였을까? 이것은 아마 단순히 중경을 부(府)로 승격시키려는 단순한 원인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적어도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지리적 요인이다. "片葉浮沈巴子國, 兩江襟帶佛圖關(유중반도 흥망한 나라 파자국, 양강 요충지 불도관.)"이라 하듯이 중경의 특수한 지형과 지세, 그리고 역사적 전통이 중경의 특수한 도시 운영의 이론과 방법을 만들어내었다. 공간 구성상, 중경은 도시 절반씩 상, 하로 나누어지고, 상반 도시든 하반 도시든 관계 없이 이들은 모두 많은 산등성으로부터 장강과 가릉강의 작은 하구로 흐르며, 지형 상 사분오열되어 중형으로 계곡이 나 있다. 상대적으로 장강 일선의 지세는 좀 평평한 편이다. 그렇기에 유중반도는 큰 건물과 관아를 짓고 자성을 쌓는데 더욱 용이한 곳이었다.

둘째는 문화적 요인이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 도시는 권력이 운행하는 도구이다. 또한 일정 구역의 통치중심이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이다. 그리고 도시는 일정 구역의 중심에 소재하게 된다. 특히 문화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쌍방이 함께 서로 같이 인식하고 나아가야 할 임무와 동일한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을 담당한다. 대중은 일심으로 이런 국면에서 또 도시를 더 큰 권력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물론 풍수 이론의 발전으로, 금벽산 아래가 "강주와 맥을 잇는 곳"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며, 관아 혹은 자성의 출현 역시 일종의 장강을 드나드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1) 편엽은 유중반도를 의미. 유중반도는 장강과 가릉강으로 둘러싸여 마치 강위에 떠 있는 한편의 나뭇잎과 같다고 보고 이렇게 비유한 것. 파자국은 주 무왕 때 중경에 세워진 제후국으로, 주나라의 무왕은 중경에 종족 姬姓을 봉하고 '巴' 나라 하였으며 작위가 公侯伯子南 중 '子' 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파자국(巴子國)'이라 함. / 양강은 장강과 가릉강, 襟帶는 사방이 산이나 강으로 둘러싸인 요충지, 불도관은 重慶老城西에 위치한 관문으로, 지세 험준하고 양측이 물로 둘러싸임. 삼면이 낭떠러지로 군사요새지, 이곳은 자고로 "四塞之險이 甲於天下"이라 하여 兵家에서 반드시 차지하려는 千古要塞의 땅임. '片葉浮沈巴子國'을 거론한 것은 역사의 유구성, '兩江襟帶佛圖關'을 거론한 것은 유중반도의 지세의 험준성을 나타내고 있음.

명씨대중회의대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에

종친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호소합니다!



명씨대중회 대 회장 명 태 식

전국의 28,000여 종친 여러분!

새로 시작한 2017년이 벌써 반을 훌쩍 넘어 있으니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는지요?

우리 대중회의 연중 주요행사는 여러 종친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월 5일 정기총회, 10월 3일 시조황제와 2세조, 3세조에 대한 시제, 그리고 봄가을에 있는 시조 황제 탄생지기념관 방문과 예릉 추모방문입니다. 지난 가을에는 안타깝게도 탄생지기념관 방문계획이 참가신청 종친들이 적어서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명씨는 다른 성씨와 달리 시조할아버지께서 중국의 황제이셨기에 탄생지도,릉도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사실 가깝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50~60여 명의 많은 인원을 추모방문단으로 구성하여 시조의 나라를 직접 방문해왔습니다. 놀라운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곤 합니다.

다른 성씨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만의 독특한 힘이고, 자랑스런 문화이며, 애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황제의 후예라는 사실로 말미암은 자존감이 우리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지요. 황제의 후예! 정말 특별한 혜택입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것조차도 아주 큰 나라의 황제의 후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원나라 말의 혼란 시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시조께서는 그 너른 중국의 중원을 말로 달리며 백성을 못살게 하던 이들을 제압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셔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어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매우 모범적인 황제이셨습니다.

우리는 황제의 후예로서 그 훌륭한 뜻과 정신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물리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큰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든든한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저 이전에 대중회장을 지내셨던 여러 전임 회장님, 특히 명위진 명예회장님께서 우리 대중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부분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타임캡슐에 고스란히 담아 100년 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오늘의 역사를 신문으로 기록해서 남기고자 했습니까?

명위진 명예회장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탁월한 선견지명과 실천력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서둘러 방향을 잡아 시작하셨습니다. 명씨 발전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고마움으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처럼 굵직굵직한 일을 그토록 많이도 해주셨

기에 마음이 흐뭇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알차게 열매 맺도록 쉽지가 않아야 합니다. 선임 회장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종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명씨 역사기록인 명씨신문, 명씨대중보에 우리의 역사가 멈추지 말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31일 발행된 창간 준비호를 시작으로 2012년 10월 26일 발행된 창간호인 제1호부터 2016년 11월 8일에 발행된 제12호, 그리고 이번 발행된 제13호까지 명씨대중보 발간비용은 전액을 명위진 명예회장님께서 부담해 오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명위진 명예회장님의 사재를 털어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타 종친회의 경우에도 구독료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회도 마찬가지로 다음 호부터는 종친 개개인이 신문구독료를 부담해서 발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종친들이 내셔야 하는 구독료는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시조께서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대하국의 황제이십니다. 우리 후손들이 대전 뿌리공원에 명씨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를 계기로 시조의 큰 뜻과 용맹스런 기상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전 뿌리공원에는 현재 200여개가 넘는 성씨들이 자신들의 성씨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이미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상징조형물 설치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회 임원들이 2~3차례에 걸쳐 뿌리공원을 방문하여 타 성씨들의 상징조형물을 돌아봤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 수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상징조형물을 확정하고, 12월말까지 설치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각 지방종친회별, 그리고 뿌리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긍지를 가진 개인 종친들께서 찬조금을 내주시면 이를 모아 상징물을 설치하고, 찬조자 명단을 상징조형물에 새겨 넣어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명씨는 1701년 신사보 족보를 처음 발간한 이후, 2003년에 이르기까지 9차례에 걸쳐 족보를 발간해왔습니다. 이제 새 족보발간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족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5년 또는 10년 뒤에나 족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남한의 종친을 기록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통일 뒤 북한의 종친 기록을 합치는 대 역사를 빈틈없이 완성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족보발간을 위한 가칭 족보발간추진위원회, 또는 족보중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작업부터 차근차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정확히 말해서 남북한에서 태어난 명씨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족보에 오르게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종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명씨는 전국을 통틀어서 28,000명, 성씨 순위 80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시조께서는 누구보다도 뜻도 높았고 훌륭하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 시조의 나라 대하국 황궁터가 중경에서 발견되어 이미 오래 전부터 발굴작업과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는 아주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조께서 당신의 존재를 점점 더 또렷하게 일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종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훌륭하신 시조, 대하국 황제가 계십니다. 이를 늘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며 종친 간의 사랑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단합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명씨 역사를 찬란하게 하는 일, 아무도 대신해 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명씨의 일을 함께 해 나아갑시다.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종친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하장학회 2017년 설 복지금 15명에게 7,500,000원 전달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는 2017년 1월 25일부터 26일, 그리고 이어서 2월 4일까지 전국의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설 복지금 각 50만원씩 총 7,500,000원을 전달하였다.

대하장학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종친 및 종친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금 신청을 접수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지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복지금 신청서는 설과 추석에 앞서 명씨대종회 홈페이지와 대하장학회 다음카페에 공지되며, 매년 새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한다.

(문의: 장학회 사무총장 010-4267-3610)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명씨대종회 신임 사무총장에 명순식 전 사무국장 임명

명씨대종회 명태식 회장은 2017년 7월 19일 18:00, 서울 사당동 소재 음식점 '거당'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명인호 사무국장 후임에 명순식 전임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시켜 임명했다고 밝혔다. 명순식 사무총장은 전 명인호 사무국장의 전임 사무국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대종회 업무에 밝은 편이다. 이날 임명과 함께 명순식 사무총장은 즉시 대종회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명씨대종회 사무국〉

대전뿌리공원 명씨상징조형물 설치 찬조금 모금!



*시조황제의 곤룡포에 새겨진 용문양을 새겨 넣은 상징조형물 검토안

우리 명씨가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 내에 성씨상징조형물 설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종회(설치추진위원장 명태식 대종회장)는 조형물의 설계 등 설치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조형물은 올 해 말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대종회는 조형물 설치 소요비용을 전 종친을 대상으로 찬조를 받아 설치하고, 조형물에 전체 찬조자 명단을 새겨 넣어 조형물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길 계획이다.

● 지방종친회별 찬조 및 종친개인 찬조문의: 사무총장 명순식 010-2008-8151

국민은행 392801-04-176571
예금주 **명씨대종회**

명씨대종회 파주시제 날짜를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10월 3일 ▶ 10월 21일

명씨대종회는 지난 5월 5일 정기총회에서 매년 10월 3일에 모셔오던 시제일을 10월 4일이 추석인 관계로 올해 시제에 한해 2017년 10월 2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종친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씨대종회보 문의 및 구독 신청

• 명씨대종보 편집인

명광주 010-4267-3610

이메일: adpromyung@naver.com

• 명씨대종보 편집국장

명순구 010-4007-1847

이메일: skmyoung@korea.ac.kr

• 명씨대종회 사무총장

명순식 010-2008-8151

이메일: nismyung@daum.net